

# 더 풍성해진 '임실N페스타'

### 군, 5월 1~3일 개최... 봄꽃 경관·특별한 프로그램·다채로운 먹거리 등 마련

임실군이 1500만 반려인을 위한 대표 반려동물 축제 '2026 임실N페스타'는 화려한 봄꽃 경관과 더불어, 역대 축제 중 가장 풍성하고 다채로운 먹거리 프로그램을 전면에 내세워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준비를 마쳤다.

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임실 오수의전관광지 전역에서 제41회 의견 문화제와 연계한 '2026 임실N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수의전 설화를 기반으로 한 전통성과 현대 반려문화를 결합한 복합형 문화축제로 수려한 행사장 경관조성, 프로그램 및 먹거리 등 전 분야에서 대폭 업그레이드 된 구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축제공간을 전면 재정비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드넓은 잔디광장과 함께 1,000여개의 수국화분, 약1.3km 규모의 오수천변 꽃양귀 군락을 조성해 봄꽃이 어우러진 감상공간을 연출했다.

축제 프로그램은 '참여·체험·전문'을 키워드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축제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차별화된 신규 콘텐츠를 대거 선보인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FCI(세계애견연맹) 국제 어질리티 대회다. 사람과 반려견이 한 팀이 되어 역동적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며 호흡을 맞추는 이 대회는, 관객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를 선사하며 오수가 반려동물 스포츠의 성지'임을 입증할 전망이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오수 마스터즈 데이'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가대표급 훈련사들이 펼치는 정교한 시범을 통해 반려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고, 올바른 훈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전문성을 더한 '원광대 RISE 사업단 연계 마용대회'도 개최된다.

이와함께 반려동물 한방센터, 행동교정 및 훈련체험, 인식표·목줄만들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돼 반려기초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뱅크트레인' 200팀과 펫투어 80팀을 운영해 전국단위 방문객을 유입해 확대하고, 총13개소 1,464면 규모의 주차장 확보와 진출입로 정비로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먹거리 역시 임실만의 강점을 살린 것으로 풍성하다. 50개월 미만 임실 압소 한우 판매관을 특별 운영하여 전 국민이 명성을 가진 임실 한우의 깊은 풍미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수 지역 맛집들이 참여해 육개장, 소고기전, 사골우거지국 등 진한 맛의 향토 음식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고향의 맛을 선사한다.

여기에 반려동물 축제라는 정체성에 맞춰 '임실N치즈 판매관'에서는 특별 제작된 펫 전용 치즈가 포함된 '땀땀 소풍키트'를 선보이며 반려가족을 위한 미식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전 국민이 제96회 춘향제의 열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와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춘향제 모습.



남원시가 전 국민이 제96회 춘향제의 열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와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춘향제 모습.

## '제96회 춘향제' 준비 만전

### 남원시, 전방위적 홍보·편의시설 등 축제 전반 재점검

남원시가 전 국민이 제96회 춘향제의 열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와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는 홍보 전략부터 편의시설까지 축제 전반을 재점검하며 방문객 준비를 마쳤다.

시는 우선 수도권의 핵심 거점인 용산역과 강남역 센트럴시티를 비롯해 호남권의 관문인 광주 유스퀘어, 전주·목포 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형 옥외광고를 배치하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특히 광주 월드컵 롯데아울렛과 전주 지역 주요 대학교 현장에서는 시민 매혹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해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홍보 전략도 눈에 띈다.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와 카카오톡 비즈보드 광고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티맵(T-MAP) 음성 안내를 활용해 남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실시간 축제 정보를 전달한다.

올해 춘향제는 영유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든이 위한 축제(Festival for All)'를 지향한다. 요천변 패밀리 존(ZONE)에는 역대급 규모의 '메가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어린이가 전용 놀이터를 마련했으며, 드론 조종 및 AI 기술 체험 부스를 운영해 교육과 재미를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환경을 조성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전동 보조기기 공유 프로그램인 '휠체어와 경량 휠체어 '미러쥬'를 도입해 축제장 전역을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모차 대여소, 수유실, 기저귀 교체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고 고령층 전용 휴식 공간을 확충해 포용적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축제 프로그램은 기쁨, 절기, 사랑, 전통이라는 4가지 테마 아래 7일간의 밀착형 프로모션을 꾸며지고, 글로벌 춘향 선발대회는 작년에 이어 국적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미를 알린다.

축제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먹거리로 남원 특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지역 축제의 고질적 문제인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28개의 먹거리 부스와 야간의 낭만을 더한 '일광포차'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으며, 축제 최초로 '다문화기 사용 시스템'을 도입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축제의 이정표를 세울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마케팅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6 순창강진산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팔덕다용도경기장과 공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등 6개 구장에서 분산 운영했으며, 순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순창군축구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48개 팀, 800여 명의 선수단과 학부모가 참가해 지역에 활기를 더했다.

군은 대회 기간 '제2회 순창 참두름 여행'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소식통

### 임실군, 시설원에 농가 맞춤형 자재 지원 확대

임실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설원에 농가 지원에 나섰다. 군은 총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시설원에 분야 자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가격 급등으로 농가 경영에 부담이 커진 비료, 삼토, 모목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화훼류 및 과채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7개 핵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으며, 주요 지원사업은 화훼류 재배 지원,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 과채류 양액시설 기구 지원, 양액 재배시설 삼토 지원, 딸기 육묘 지원, 토마토 육묘 지원, 오이 육묘 지원 등이다.

특히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양액 비료와 양랑 목표를 신속히 공급 완료하여 농업인들이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보건소의료원, 피부과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 실시

임실군보건소의료원은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 가정의학과 및 피부과 외래 진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여 운영하였던 진료 과목을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의학과·피부과 전문의 재채용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습관 개선 및 전반적 증상에 대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피부질환 관리 등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곤 원장은 "고령의 전문의사가 가진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련함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2회 순창 참두름 여행' 성료

순창군이 봄철 대표 임산물 참두름을 활용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뒀다.

순창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경천 일원에서 열린 '제2회 순창 참두름 여행'이 많은 관광객의 방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외부 방문객이 대거 찾으며 행사장 일대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참두름을 비롯해 고사리와 미나리 등 계절 봄나물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군은 행사 기간 동안 농특산

물 판매액이 약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일부 인기 품목은 조기 소진되는 등 현장 판매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체험 프로그램도 관광객 유입에 기여했다. 두름 장아찌 만들기과 두름 액세서리 제작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먹거리 장터에서는 산나물 비빔밥과 두릅전, 두릅튀김 등이 호응을 얻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함께 산림조합, 농협중앙회가 참여한 화분 나눔과 시식 행사도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현장에서는 3만 원 이상 구매 시 추가 증정품과 볼펜, 텀펜 이벤트가 열려 소비를 촉진했다. 경천 일대에 만개한 수선화와 튼튼 등 봄꽃 경관과 음악분수도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 같은 요소는 농특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빛 없는 채무 제로' 건전 재정 운영

남원시가 최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사업 손해배상 판결로 불거진 '재정 위기설'에 대해 남원시 재정 운용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밝히며 시민들의 불안 해소에 나섰다.

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빛 없는 채무 제로(ZERO)'라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 혁신을 통해 미래 투자를 가속화 입장을 20일 밝혔다.

시는 2017년 지방채 전액 조기 상환을 통해 '지방채 제로(ZERO) 도시'를 선언한 이래, 현재까지 8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는 견고한 건전 재정 기초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은 남원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8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한된 세수 여건 속에서도 채무 없이 편성했다는 점에서 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민선 8기 325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063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의 성장 동력을 확보, 건전 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도비 사업 매칭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해 민선 8기 시정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남원 발전을 견인할 강력한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유소년 축구대회·관광 연계 스포츠마케팅 성과

순창군이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한 마케팅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섰다. 순창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26 순창강진산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팔덕다용도경기장과 공실운동장, 생활체육운동장 등 6개 구장에서 분산 운영했으며, 순창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순창군축구협회가 주관했다. 전국 48개 팀, 800여 명의 선수단과 학부모가 참가해 지역에 활기를 더했다.

군은 대회 기간 '제2회 순창 참두름 여행'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2026 순창강진산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순창군은 유소년 선수들과 소통하며 현장 분위기를 이끌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